좁은 문 삶은 정곡 찌르기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좁은 문 삶은 정곡 찌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좁은 문 삶은 정곡 찌르기'
정곡을 찌른다는 것은 과녁의 정중앙에 화살을 맞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갑니다. 그 이유는 정곡을 찌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정곡을 찌를 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거둬내야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사용할 정도로 유명합니다만 잘못된 선입견이 퍼져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1951)의 소설인 "좁은 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청교도 금욕주의에 속박되어 있는 마음의 우울함을 주제로 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뛰어난 묘사를 통해서 길이 남을 고전이 되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나타납니다.
우리 또한 좁은 문과 좁은 길하면 율법과 계명의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고단하고 경직된 삶을 떠올립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인류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는 본문 자체에도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좁다'는 단어는 헬라어 스테노스(στενός)로써 좁다는 뜻입니다. 한편 14절에서 '좁고'로 번역된 말은 테들림메네(τεθλιμμένη)로써 '고난'이라는 뜻의 들립시스(θλιψις)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번역 또한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박해 혹은 율법과 계명으로부터의 속박에서 주어진 우울함을 견뎌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를 너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다’는 말은 로마서와 기독교의 대명제처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대명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주어지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끝에 구원은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말 대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사용해 본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은 지금 있는 공간에서 구분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틔워놓은 틈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구분된 다른 상황으로 가기 위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는 것은 인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인간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낮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음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성경에서 등장한 인간론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인간론이기도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높음의 욕구가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의 교훈을 통해 세분화시켜서 높음의 욕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움에 대해서만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핍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문이란 비어있는 상태로부터 채워지는 상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론을 전제로 하셔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으로 들어갈 때에 마음의 결핍감이 해결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넓은 문이란 육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에 공백으로 인한 결핍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결핍감은 채우고자 하는 흡입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흡입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상태로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육체가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문으로 삼아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을 열고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육체가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결핍감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마음의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마음에 결핍감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결핍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육체의 문을 열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에 결핍감이 느껴진다고 여기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이자 넓은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결핍감의 문제를 건강에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결핍감이 건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취직에 대해 결핍감을 가질 것이고, 젊은이들은 애인이나 결혼에 대한 결핍감을 가지고, 부모라면 자녀 형통에 대한 결핍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감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육체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상황들을 마음의 결핍감의 이유로써 여기게 됩니다.

금식을 할 때에 2~3일 정도가 지나면 별의별 음식이 다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짜장면 생각이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은 없고 된장찌개가 있어서 일단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자 더는 짜장면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짜장면과 연결이 되었을 뿐이지 정말로 짜장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결핍감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결핍감의 이유를 육체의 문을 열고 해결하려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유를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착각과 오해가 바로 정곡을 찌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론에 입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결핍감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 들이지 않으므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에 불과합니다.

신학 용어로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에 육체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인이라는 말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연인은 육체로 접하는 온갖 것들에서 마음의 결핍의 이유를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육체의 문 대신에 하나님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육체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가는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육체로 접하는 이 세상 것들에 의해 느껴지는 결핍감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셔들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결핍을 느끼거나 배우자에게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인에 대한 결핍을 느끼거나 직장의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점수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결핍감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라는 문 하나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문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결핍감의 원인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마음의 충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애인이 그리울 때에 마음에 결핍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마음의 충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곡을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애인이 있다고 해서 충족이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며, 돈이나 애인이 없다고 해서 결핍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결핍감을 느끼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등지고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며 하나님 우편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삶의 과정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한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결핍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사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백

억 몇 천억의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마음의 충족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난했던 사도들이 대형예배당의 목사님들보다 더욱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마음을 예배당에 빼앗기지 않고 신앙의 정곡을 찌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지나고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 보좌 우편에 마음을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충족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결핍감을 준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대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정곡을 찌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결핍감의 순간에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 문을 통과해서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삶에서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넓다'는 말을 쉽고 편하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문을 열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인이 걷게 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돈 벌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무런 장애 없이 돈이 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세상을 등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마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족감을 얻습니다. 이때에 돈이 없는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돈 없는 상황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더 쉽고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평생 마음의 결핍감을 따라 돈을 벌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합친다면 결코 쉬운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삶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인사들은 "자녀가 변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더는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삶이 편해졌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 힘든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뿐 결코 쉽거나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을 보면 알리사는 청교도 금욕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사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려고 애씁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좁은 길에 만족하고자 애쓰지만 내면의 고통은 그녀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그리움에 괴로워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가 가졌던 좁은 문에 대한 이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알리사가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좁은 문을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충족을 얻어 결핍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결핍감을 느끼신다면 넓은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곡을 찌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핍감의 원인은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따라 하늘을 향해서 기필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결핍감을 하나님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의 문을 통해 세상에 나가 착각과 오해 속에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쫓는 넓은 문 넓은 길의 삶을 중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결핍감의 이유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으로 충족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